Samsung
Financial Networks

KODEX 200 ETF (069500)

Kodex 는 한국을 대표하는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 브랜드입니다.

2023년01월31일 기준
준법감시인 승인필 202301-2ETF01

KOSPI200 지수의 수익률을
추적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
ETF입니다.

투자 위험 등급 : 2(높은 위험)					
1	2	3	4	5	6
매우 높은 위험	높은 위험	다소 높은 위험	보통 위험	낮은 위험	매우 낮은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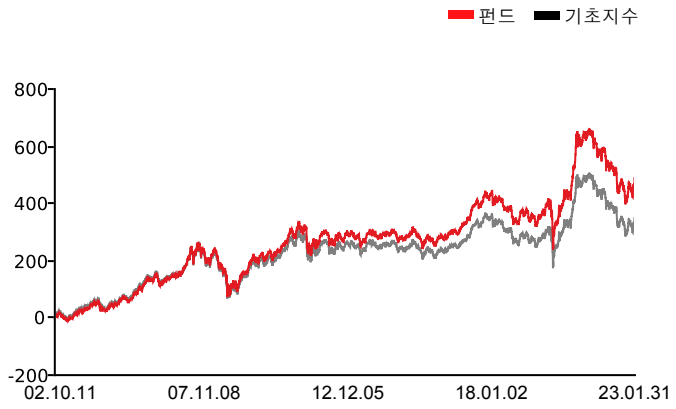
※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,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누적수익률(%)

	1개월	3개월	6개월	1년	설정후	연초이후
KODEX 200	8.87	7.40	-0.19	-9.26	470.74	8.87
기초지수	8.99	5.90	-1.87	-11.37	332.53	8.99
기초지수 대비	-0.12	1.50	1.68	2.11	138.22	-0.12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 수익률 기준입니다.

수익률 그래프(%)



※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세전수익률 기준입니다.
※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업종 비중(%)

전기 전자	41.53
금 융 업	13.81
서비스업	9.21
화 학	8.82
운수 장비	7.73
의 약 품	3.95
유 통 업	3.06
철강 금속	2.99
운수 창고업	2.06
기타	6.84

상위 10종목(%)

삼성전자	28.65
SK하이닉스	4.88
삼성SDI	3.40
LG화학	3.00
NAVER	2.67
현대차	2.30
POSCO홀딩스	1.97
카카오	1.93
KB금융	1.91
신한지주	1.82

※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은 PDF구성내역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보유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지수소개

KOSPI200 지수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입니다. 선물 및 옵션거래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,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. 1990년 1월 3일(100 포인트) 기준으로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/발표하였습니다..

※ 정기변경: 연 2회(6월, 12월)

기본정보

펀드명	삼성 KODEX200증권 ETF[주식]
기초지수	KOSPI 200
펀드순자산총액	55,238.83억원
1주당 NAV	32,181.08원
총 보수	연 0.15%(지정판매 0.005%, 집합투자 0.12%) (신탁 0.01%, 사무수탁 0.015%)
최초 설정일	2002.10.11
상장일	2002.10.14
분배	분기 지급(1월, 4월, 7월, 10월 말 기준)
운용회사	삼성자산운용
사무수탁회사	신한아이타스
수탁은행	HSBC(수탁사)
환매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환매방법	유가증권 시장을 통한 매도,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

※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거래정보

거래소	한국거래소
표시통화	원
거래단위	1주
설정단위	50,000주
거래소코드	069500
ISIN코드	KR7069500007
블룸버그 Ticker	069500 KS <Eq>

투자분배금 지급현황

지급기준일	분배금액(원)
2023.01.31	75
2022.10.31	105
2022.07.29	70
2022.04.29	500
2022.01.28	60
2021.10.29	85

본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써, 본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해 삼성자산운용은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원금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투자 전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